

# Dostoevsky의 문학과 죄의 문제

—“악령”을 중심으로—

고 석 구  
(英文科 教授)

## (1)

“악령”(1871)은 Dostoevsky의 작품 중에서도 유독히 독창적이다. 얼핏 보진대, 이 작품은 연대기와 비슷하게 보인다. 즉 그때에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기괴한 사건에 대해서 공평하게 기술한 것처럼 생각된다. 실제로 소설의 대부분은 연대기와 비슷한 정신으로 씌어져 있다. 모든 사건이—심지어는 어떤 은밀스러운 집안이야기까지도—어떤 보이지 않는 연대기자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두번째 편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 연대기자는 자취를 감추고 작가 자신이 자태를 나타낸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평무사해야 하는 연대기자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독삼스러운 꺾꺾덤과 신술궂은 풍자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따위 암시는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뚜렷하지 못했다. 「악령」에 관한 비평의 대부분은 이 작품을 어떤 존경받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신술궂은 만평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난 그 자체가 이미, 이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과 근본적인 과제들이 정당하게 이해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시 비평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작품의 Stepan Trofimovich Verhovernsky라는 인물과, Karmarginov라는 인물들의 사람됨이다. 그것은 전자가 Gramynovsky(서구파의 한 지도자, 1813~55)를 풍자하며, 또한 후자는 Turgeneff를 풍자한 것으로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Gramynovsky는 Poronsky가 설명하고 있는 대로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Gramynovsky만은 결코 아니며, 차라리 1830년대와 아울러 40년대의 어떤 사회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Shatov라는 인물의 입을 빌어서, Belinsky와 그 일파가 불란서의 사회주의에 물들어서 러시아의 민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기타 Varvara Stavrogin의 Peterburg 여행의 기사에 있어서, 이 Varvara 및 그녀의 거만한 스승이며 친구인 Verhovensky가 모욕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0년대, 나아가서 70년대의 정신적 Aristocracy까지 뽕뽕 풍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소설은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개인에 대한 풍자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소설의 구성에 있어서, 작가는 풍자적인 방법을 기초로 하여, 각 인물을 전형화시켜 전환을 거의 parodize하는 것으로 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더러 parodize의 대상은 종종 Turgeneff의 “Enough”와 시인 Ogaliiov의 “학생”과 Glanovsky의 “편지” 등이 되고 있다. Stepan Verhovensky의 로맨틱한 시와 Chernyshevskii의 미학에 대한 parody도 유명한 것이다. 이 외에도 소설에 나타난 문단의 경향은 당시의 문학적 경향을 암시한 것이며, Sigaliev의 이론은 utopia사회주의의 공상에 대한 종합적 parody이며, Pyotr Verhovensky의 이데올로기는 유명한 허무주의자 Sersei Nechaev의 견해에 대해서 탁월하게 parodize한 것이다.

## (2)

Dostoevsky 자신은 「악령」을 쓰면서, 당시의 비평가들이 평가했던 것보다 한결 많은 가치를 이 소설에 주고 있다. 1870년 5월 2일 Dresden에서 Strahov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지금껏 이러한 작품에 있어서 이같은 테에마를 다루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네. 이 작품에서 무엇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전연 어림잡아 볼 수조차 없네」라고 무척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즉 Dostoevsky의 편지는, 그가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고자 무척 고심한 흔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창작은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측으로부터 회의로 끊임없는 동요가 따르는 초인간적인 노력이었던 것이다. 특히 「악령」을 한창 쓰고 있을 무렵, 그 과제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어서, 이것이 과연 성공할까 하는 의심이 Dostoevsky의 마음을 평강히 괴롭혔다. 이 소설에 대한 그의 열심과 흥분은, 많은 비평가들이 「Nechayev사건」의 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 보다는 사뭇 더 큰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1865년 11월의 Gvanov 살해사건 뒤에 일어난 이른바 「Nechayev사건」은 마침 이 작품의 단서가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Dostoevsky가 뜻하던 바도 아니며, 소설 그 자체에 있어서도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작가가 「대사건」이라고 일컬은대로 실사회의 episode로서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1873년, 「악령」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황태자 Alexandre 대공으로부터의 물음에 답한 편지에서 이 소설을 「거의 역사적인 묘사」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대대로 발전하여 온 사상의 전통성과 계승관계」를 표현할 의도에 의하여 씌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이것은 1830, 1840년대 이상주의자의 시대에서 60년대의 허무주의 시대에 이르는 사상발전의 추이를 전통의 맥락에서 살펴 본 것이다. 「Belinsky 패거리와 Gramynovsky 패거리는, 그들이 Nechayev당의 직계 부모이다, 라고 말하여져도 어찌면 믿지 않으리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Dostoevsky는 「악령」에서 사상의 전통성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Nechayev주의(허무주의)와 같은 현상이 어떻게 러시아 사회에 생겨서 발전하고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Nechayev주의는 Dostoevsky에게는, 단순히 우

연한 일이 아니며, 혁명의 소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pisode를 포착하여 혁명의 도덕적 본성을 폭로하면서, 직접 그 중심에 타격을 가하고자 하였다. 「사회」가 풍자의 대상이 된 것은, 일반 사회가 혁명사상에 침투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Dostoevsky는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갈라놓지 않았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그에게는 허무주의자요, 부정하는 사람이며,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가 자기의 작품에서 그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1870년 3월 24일 Dresden에서 Strahov에게 보낸 편지의 귀절을 기억하기만 하여도 충분히 알 것이다. 그는 「부인문제」라고 이름붙여진 논문에서 Strahov가 허무주의자와 서구파를 공격했던 문장이 너무나도 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대는 너무나도 부드럽기 짝이 없다.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손에 매를 쥐고서 쓰지 않으면 안되네, 많은 경우 그대는 그들에게 너무도 지나치게 총명하단 말이네. 그대가 단일에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더욱 더 거칠게 공격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으니, 허무주의자와 서구파에게는 근본적으로 회초리가 필요하단 말이네.」

## (3)

「악령」의 맨 처음의 과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다. 혁명이라는 염병에 대하여, 허무주의자와 자유주의자에 대하여, 또한 아버지 시대와 아들의 시대에 대하여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경향소설로서, 이 작품은 손에 회초리를 들고서, 비겁하게 체면을 차린다거나 하지 않은 채 통렬히 쓰여졌다. 조그만치도 젊은이에게 사양하지 않고, 오히려 폭로와 조소와 책벌로써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쓰여진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풍자작품으로서의 소설의 형식을 미리 결정하여 놓고, 전편을 도광시(parody)와 기지와 풍자시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의 요소는 「악령」의 어느 곳을 펼쳐 보아도 곧 눈에 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다른 예술 요소의 침입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요소는 이 작품의 구성을 복잡하게 하고, 전연 별도의 계략이라던가 출처를 지닌 수 많은 인물을 소설 속에 끌어 넣어, 이른바 병행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Dostoevsky의 세계관과 그의 혁명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지반에서 발달하였는가를 생각하여 보면, 이 새로운 요소의 침입은 자연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Dostoevsky는 「작가일기」에서 「일단 Christ를 거절한다면, 인간지식의 힘은 놀라운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쓰고 있지만 이 작품 「악령」은 놀라운 이 결과를 인류에게 보여주려고 쓰여진 것이다. 마치 동그라미의 들레가 중심을 향하여 있듯이, 모든 인물은 무신론자로 일괄된다. Stavrogin의 비극적 병정이라든지, Kirillov의 무지, Pyotr Verhovensky의 악마적 흥포, Sigaliev의 광신적인 지문, Liputin의 소사기한적인 근성,

Starvrogin 부인의 자기 만족적인 우둔, Faegika의 하나밖에 모르는 잔인성, Yulia Mikhailovna의 수다, Karmarginov의 우열한 자기탐닉—모든 것이 무신론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어느 누구나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무신론자가 아니면, 뻔뻔스러운 파렴치한이다.」 Dostoevsky는 일찌기 대작 「무신론자」 혹은 「대죄인의 일생」을 펴하고 있었지만, Starvrogin은 바로 이 대작의 주인공을 변형시킨 것이다. Dostoevsky는 이 대작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전편에 일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괴로워한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이다. 주인공은 일생동안 혹은 무신론자, 혹은 신자, 혹은 광신론자, 혹은 이 단자가 되어 있다.」 Starvrogin의 본질은 이 몇 줄 속에 표명되어 있다. 다른 특질은 이 전제로부터 어림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Starvrogin은 마치 별세계(別世界)에서 나타난 것처럼, 「악령」의 근본 테마와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 많은 새로운 인물을 소설 속에 끌어 넣고, 이들 동반자와 함께 소설의 第2 플랜을 구성하고 있다. 요컨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소설의 근본 의도와는 달리 일종의 병행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이야기는 그 양식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각 인물의 독특한 구성과 그 심리적, 육체적 특질에 대한 풍자적 표현과, 각 인물에 나타난 Caricature와 Grotesque한 자태로 인하여 그들의 성격적인 특질은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악령」은 비극적인 도화극의 인상을 준다. 각 인물은 모두 배워서 외우는 역할을 하는 분장배우와 같다. 그 하나 하나가 각기 악을 본뜬 가면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Starvrogin과 그 동반자만은, 관객석에서는 가면극의 무대 뒤에 우연히 참여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들은 외모에 있어서, 정신적 깊이에 있어서, 또 비극적인 진면목에 있어서, 그 뿐더러 분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우수꽉스러운 점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인물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Lizaveta Drozdov Darsha, Maurisky Nikolaievitch 등인데, 그들은 「악령」의 일반 양식에서 떨어져서, 별다른 예술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진실로 인물다운 그들은 도화극의 외면에서 차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은 수수께끼처럼 보이며, 그 나타남과 존재는 전혀 우연한 원인에 뿌리박고 있다. 주인공의 이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지위는, 우리들이 Starvrogin의 정신상태와 혁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분석하여 보면 한결 뚜렷하여 진다.

#### (4)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Starvrogin을 「악령」중에 묘사된 음모의 참된 중심점으로 보아, Verhovensky 따위는 그가 기르는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뜻에서 비평가 Grossmann은 Starvrogin을, 세계문학사상 Bakunin의 인물됨을 가장 잘 대표한 사람이라고

만하고 있다. 그렇지만 Starvrogin은 혁명가가 아닐뿐더러, 일찌기 혁명가였던 일도 없었다. 이 일은 소설속에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는 일찌기 운동의 지도자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약에 그가 혁명에 다소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한량으로서 심신한 나머지 우연히 관계했을 뿐이다. 요컨대 그는 악의 깊은 수렁에 가라앉으면서, Dostoevsky가 「대죄인의 일생」을 위하여 만든 줄거리를 악보나 무엇과 같이 연출했음에 불과하다. Polonsky는 Starvrogin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Dostoevsky의 독특한 인물이며, 그가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항구적인 주인공이며, 불신앙과 범죄와 타락의 수렁을 통해서 참회한 허무주의자이다. Starvrogin의 독특한 점은, 자유주의자라든가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그의 상황이다. 이 무신앙적인 환경은 그의 정신을 시련시키기 위한 용광로가 되었다. 그가,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서 꽤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에야 느닷없이 나타났다는 사정도, 그의 인격에 영겨있는 많은 보충적인 특질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그의 가장 뚜렷한 점은 그가 혁명에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접촉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출처를 가진 두 개의 예술층, 두 개의 의상이 접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허무주의자 Pyotr Verhovensky를 중심으로 하는 비극적 도화극과 Starvrogin을 주인공으로 하는 진짜 비극을 연결하는 이음새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소설의 전체를 구성하는데 반영되어 독특한 복잡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개의 plan의 결합은 유기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음새는 박약하고, 애매한 인상을 불러 일으킨다. Starvrogin은 오랫동안 Dostoevsky한테서 사랑을 받은 인물의 예술적 형상으로서, Dostoevsky 자신이 그려냈듯이, 일생동안 신의 실재에 관한 사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 그는 시련을 위한 용광로로서 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혁명이 Starvrogin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상 이와 같은 용광로는 혁명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Starvrogin은 냉정히 Verhovensky의 설명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무심코 혁명에 이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대의 러시아인처럼 신에의 믿음을 잃어버린 Starvrogin은, 언젠가는 Shatov에게 신앙을 타이르고, 또 언젠가는 Kirillov에게 무신앙을 타이르면서, 우선 자기 스스로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등 신앙과 무신앙의 사이에서 동요하였다. 결국 그는 한때 회의의 용광로속에 있었던 Dostoevsky 자신의 역할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 (5)

이상은 작품의 구성과 plan의 면에서 본 연구이지만, 나아가서 작품중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의 사상과 성격에 관해서 덧붙이려 한다.

Starvrogin은 무정부주의자 Bakunin을 model로 삼은 인물로 말하여지는데, 확실히 이 작

품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는 아직 25세의 청년으로, 말수가 적은 데다 온화하고 동시에 용감할뿐더러 자신이 강한 위인이다. 사상에 있어서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달리는 사람이고, 신앙에서 무신앙으로 옮겨가서, 사회적 허무주의에서 우주적 허무주의로까지 변하고 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연상케 한다. 그의 얼굴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작가는, 어느 시기에는 자신의 모든 천성을 발휘했던 사람이, 어느 시기가 되어서는 일종의 내적 부동의 상태로 생각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Starvrogin은 우리들 앞에, 그 생애에 있어서 두 시기의 경계가 되는 때에 나타난다. 이전의 Peterburg의 생활, 대단한 음주, 결투, 음탕, 도박 따위에 시간을 보낸 방종한 생활과 그의 외국 여행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생활과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얼어붙은 마음과 정신적 무활동속에서 언제나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천부적으로 많은 특질을 타고난 Starvrogin은 필연적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러시아에서 외국으로 나간 처음부터 그는 여러가지 사상분제에 흥미가 끌렸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비상한 비약과 활동을 보였다. 이 점에 대하여 소설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짧게 쓰여진 그 말은 무척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구라파를 돌고서, 이집트에도 갔으며, 예루살렘으로도 여행을 하였다. 그 뒤 어딘가에서는 아이슬란드(Iceland) 학술탐험대에 관계하여, 아이슬란드에도 실제로 여행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대학에서 한 겨울동안 강의를 들은적이 있다는 것도 전하여지고 있다.……」

그의 내면은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이국취미적인 감각을 동경하고 있었다. 4년 뒤 그는 모든 방면에서 빛나는 많은 지평선을 가지고 고국 러시아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것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든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도 안된다. 그는 조국에 돌아왔지만, 그가 살 집도, 할 일도 없었다. 일종의 새로운 Evgenie Onegin(푸슈킨 작품中の 인물)이다. 자기의 고향에 살면서도 집없는 떠돌이가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1820년대의 Onegin 보다는 훨씬 내용이 있고, 복잡한, 현대적이며 데카당적인, 그리고 러시아에 대하여서는 사뭇 뜻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Starvrogin이 다시 귀국하였을 때에는 조용하고 주의깊고 침착해 보였다.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사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의 반짝이던 눈빛은 무척 침착하고 또렷하게 보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입속함과 가라앉음과 어딘지 얼빠진 모습까지도 엿보였다. 그것은 새로운 내면적 과정의 징후이며,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지적인 것이었다. 그에게는 뚜렷하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정신적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머리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생활인 것이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힘이 약하다. 따라서 그것은 그의 천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를 갱생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의 혈액은 모두 머리에 올라가고, 사상의 활용만이 쏟아지고, 그의 성격을 약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자기 자신의 감각에 있어서도 그는 이전의 긴장을 잊고, 이전의 솔직함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때때로 그 사상에 몰두하여 사람이 들어오는 것조차 모를 때가 있다. 일종의 지적인 최면(催眠)이다. 그렇지만 그의 법적인 아내가 된 반미지광이며 절름발이 여자인 *Levyadokina*를 방문할 때부터, 그의 심리생활이 어느정도 물결치게 되었다. *Levyadokina*는 그의 자아(自我)가 숨어 있는 병든 곳에 부딪히게 된다. 그에게서 잠시 잠자고 있던 모든 나쁜 본능이 눈을 뜬 것이다.

그녀의 집에서 나온 그는 도중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Fezika*를 만나게 된다. 이 때 돌이는 *Pyotr Verhovensky*로부터 절름발이 여자를 죽이라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Stavrogin*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그를 위협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거꾸로 *Stavrogin*은 그의 목덜미를 잡아 다리 위에 세차게 때려 눕힌다. 그에게서 지금까지는 잠자고 있던 야수성이 눈을 뜨게 된다. 그는 이제 이 야수성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윽고 그는 악마처럼 커다랗게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Fezika*에게 돈을 주어서, 그는 절름발이 여자의 살해에 침묵의 승낙을 주고 만 것이다. 그 뒤 그는 더욱 더 성질이 급해져서, 특히라면 꿀을 내기 마련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균형을 지키기는 어려워진다. *Liza*와 하룻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그는 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름다운 *Liza*와 몸을 접촉하고 인생의 봄을 되풀이하게 되어, 자신의 원래 생활의 환희를 다시금 맛보려고 피하여 보았지만, 그 결과 자신이 그러한 육욕을 위해서는 전연 불구자가 되어버린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어이할까보냐!

생활에 쓸모가 없게 된 것을 느낀 그는 이전 자살할 수 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죽을 때에는 아무 발작도, 절망도, 경련도 없이 죽고 있다. 복을 즐라멜 때에도, 어떻게 하면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하고 냉정히 생각하고 있다. 그는 죽기 전에 *Dasha*에게 글을 남기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방탕에 몰두하였지만,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좋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그는 마지막까지 지(智)의 사람이었다.

## (6)

*Shatov*는 *Dostoevsky*가, 자신의 *Slav*주의를 대표시킨 사람이다. 그는 처음에는 허무주의자 *Pyotr Verhovensky*(*Nechayev*)의 음모단과 교제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사상이 틀렸음을 자각하여, 그들과 절연하고 신앙에 몸을 바친다. *Shatov*가 *Stavrogin*의 얼굴을 쥐어 후려갈긴 일이 있던 후에, *Stavrogin*이 *Shatov*의 집을 방문하여, 두 사람 사이의 담화를 주고 받을 때, *Shatov*는 그 앞에서 자신의 사상을 펼치고 있다. 그것은 언젠가 *Stavrogin*이 자기에게 불어 넣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사상이다. *Shatov*는 전방을 덮쳐 누르듯이 눈을 반짝이면서, 바른 손을 올리고, 거의 위협하는 듯한 태도로 시작하였다.

「그대는 알고 있는가, 지금 세계에 있어서 신을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의 민족은 어떤 백성일까. 새로운 신의 이름으로써 세계를 갱신하고, 세계를 구하는 어떤 백성이 과연 있는가 말이다. 생활과 새로운 말과의 열쇠가 어떤 백성에 부여되고 있는가?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말일세」 이렇게 감격적인 말을 하면서, Shatov는 그 민족이 러시아 민족인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생활의 열쇠를 쥐고서, 신에 관계되는 새로운 말을 가지고 세계를 갱신하는 오직 하나의 백성은 러시아 민족이다. 이렇게 하여 현대의 역사에 있어서 러시아와 그 사명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지반 위에 입각하고 있다. 종교심은 러시아인의 근본적인 특질이며, 러시아인은 무신론자가 될 수는 없다. 무신론자는 러시아인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Shatov의 근본사상이다. 그의 모든 사상은 하나의 계통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이 근본사상에서 출발하게끔 하고 있다. 이 사상은 당시의 반종교적이며, 세계주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회혁명적 사상과 대립되어, Shatov의 머리맡 채우고 있다. Shatov는 이 혁명사상이, 국민의 사상과 생활, 국민의 희망과 공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면서, 윤리적으로 별도의 사상계통을 구해내고 있다. 이 사상계통에는 러시아 국민정신의 가장 깊은 전통이 숨어 있다. Shatov는 러시아 혁명당의 철학적 학설에 대항하여, 러시아 국민은 그 정신적 소질에 있어서, 깊이 종교적이라는 설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 사상을 종합하고 있다. 더우기 이 사상은 다른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국민운동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 있어서 또한 그 존재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신을 구하는 것, 즉 자기의 신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진실한 것으로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다. 신은 온 국민의 종합적 인격이다.」 이것이 Shatov 철학의 기초이며, 이 설은 역사상 위대한 대표자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설파되지 못했던 크나큰 사상이다. 이 철학은 어느 정도 다른 색채로이지만 근대문학속에 역시 나타나고 있다.

각 국민의 역사가 무의식적인 자연의 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으면서 최후의 진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최후의 진실이 각 국민의 역사과정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경과하고 있는 생활상의 경우가 어떻든지간에, 그 생활의 내적 동기는 이상적이며 종교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국민적 창조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 그 국민의 종교적 자각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국민의 이상적인 종교 생활이, 그 국민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 특히 종교적 창조와 같이 깊은 무의식적 창조는, 국민적 개성의 모든 힘이 합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을 구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그 국민에 따라서 여러 색채를 지니고 있지만, 신의 관념 그 자체는 우주적이어야 하며, 전인류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각 국민은 각기 자기의 고유한 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Shatov의 설은, 종교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도량좁은 slav주의에 빠져있다.



이렇게 하여 Shatov는 그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견해를 배반하고 지금은 정교주의 Narodnik(민정파)의 사도가 되어, 허무주의와 그 혁명적 반항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난에는 Dostoevsky 자신의 정신이 보인다. Dostoevsky는 단순히 Shatov의 이론적 비난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우기 이 인물을 이용하여 혁명당을 밀고하려고 한다. 정교주의의 이상가이며, 더우기 열성가인 Shatov는, 천박한 혁명운동이 못견딜 만큼 싫어져서, 그 자신도 역시 밀고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Dostoevsky는 이 혁명운동을 목격하고서 이룬 국민적 지반을 떠난 피상적이고 천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결국 Levyadokina가 살해되고 Liza가 분통이 터져 발광한 난중 때문에 살해된 뒤, Shatov는 최후의 증오에 불타 올랐다. 그의 마음에는 폭풍우가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분명히 터져서 일체를 폭로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 운명적인 순간에 그의 아내가 돌아와서, Stavrogin의 아이를 낳아 놓고 만다. 거기에서 그는 심기일변하여, 갑자기 사려깊은 마음씨를 가지고 「악한」과 「살인자」를 일체 용서하였다.

Shatov의 도덕적 특질은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다. 원래 허무주의자였던 그는, 지금은 Stavrogin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혼에 던져진 사상의 최면에 걸려서 정교주의의 Narodniki(민정파)가 되어 버리고 러시아 역사상의 세계적 운동에 대하여 대단한 증오심을 품기에 이르른다. 그의 수많은 monologue에는 작가 자신의 소리가 들린다. 그렇지만 동시에 Dostoevsky도 이 감상적 정교도가 신을 믿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이 인물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을 때가 있다. Shatov의 이 불신은 그가 언젠가 서구사상의 감화를 받아서 어떤 기간 허무주의의 용기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허무주의자의 미움을 밀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고서, Pyotr 일당의 사람들에게 암살되어 버리고 만다.

### (7)

Kirillov는 가장 뛰어난, 독창적인 인물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울만한 신리불 다문적은 없었다. 그는 사회혁명으로 사회를 구제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인신(人神)의 사상에 동경하여 스스로 초인이 되려고 하였다.

그는 사회경제적 계획에 대하여 신종교의 사상을 부르짖고 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 신종교야말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고상한 이해로 말미암아서, 신종교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신종교운동의 선구자이다. 그는 인류의 행복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말을 하고 있다. Kirillov의 생각에 따르면, 최고의 자유를 얻는 방법은 자살인 것이다. 의식적인 자유이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는 두 가지의 커다란 선입자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공포와 저 세상에 대한 공포이다. 그러나 그것도 이것이나, 저것이나인지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행복에의 길을 가리고 있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의 고통스러운 순간은 생의 커다란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대한 관념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말하기를 「생은 고통이며, 생은 공포이다. 지금은 모든것이 고통이며 공포이다. 오늘날 사람은 생활을 사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공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였다. 오늘날 생활은 고통과 공포를 위하여 주어지고 있다. 거기에 모든 허위가 있다. 오늘날의 인간은 아직 진짜의 인간이 아니다. 아무래도 좋다. 고통과 공포를 정복하는 그 사람 자신이 신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살을 피하여, 살아나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식에 있어서 신을 발명하였다. 그렇지만 그 사람만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신을 발명하지 않은 오직 하나의 인간이다. 신이 없으면 그 자신이 신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여 인신인 그에게는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 뿐더러 자아의 최고조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자신의 사상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Pyotr가 Shatov를 죽인 죄를 자신이 떠맡아서 자살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의 설은 현대인의 사상이며, 신인에 대한 인신의 사상이다. 이점에 있어서 Kirillov는 Nietzsche의 선구자격이다.

## (8)

이 작품은 70년대의 러시아 독서사회의 진보적인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 작품으로부터 작가의 종교와 정치적 보수주의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Dostoevsky는 러시아의 자유주의와 러시아의 혁명을 비난하면서, 그 경우 보통의 보수주의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고, Bizantin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Dostoevsky는 이 소설에 있어서 정교 slav주의 색채를 갖은 Narodnik(민정파)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의 민정주의는 Bizantin사상을 내용으로 하여 구라파풍의 합리주의와 크게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운동에 관여했던 러시아의 자유주의 대중은 그로부터 떠나갔다. Dostoevsky의 민정주의와 러시아 자유주의의 민정주의는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자유운동은 러시아 국민을 무신론자화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이라든가 정치적 의도를 해방운동과 연결시켰다. 바로 말하여 모든 종교와 모든 신비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Dostoevsky는 종교사상의 도움을 받아 즉, 신의 도움으로써 러시아의 생활을 개조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Dostoevsky의 신은 그로 말미암아서 복잡한 사상체계로 변조되어서, 즉, 종교철학적 상징으로 변하여져서, 현실의 생활과 동떨어진 채 이 생활을 맹렬히 부정하고 있다. 요컨대 「악령」은 커다란 분노의 책이다. 동시에 「악령」은 러시아 문

학의 묵시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철두철미하게 묵시록의 색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 참 고 서 적

David magarshack: Dostoevsky

Leonid Grossman: Dostoevsky His Life and work

Konstantin Mochulsky: Dostoevsky His life and work

昇曙夢：ドストエフスキ再觀

## 《Abstract》

**Dostoevsky and Problem of Sin**  
**(“The Devils”)****Sukkoo Koh**

Dostoevsky once wrote in his ‘Diary of Writers’: “Suppose one denies the existence of Jesus Christ, anything would happen in your life” ‘The Devil’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showing the horrible fact. Stavrosin is a brilliant, attractive, but emotionally sterile young nobleman, afflicted with a genuine spiritual nihilism portrayed in the book. He has engaged in revolutionary activities and debauchery with a number of women including Lebyadikin, the crippled, weak-minded woman whom he married to show his mocking contempt for social conventions, and Marya Shatov, who is carrying his child.